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정부대표전화 110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부패신고 1398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0304

2010 vol.13

취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루 같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1일 1현장’ 방문으로 탁상행정을 현장행정으로 바꾸었고,
각종 제도와 규정에 녹이 슨 것을 현장에서 열정 하나로 벗겨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렇게 하나하나 국민들의 억울함을 열심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배우려 합니다.

‘억울함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우리의 열정과 신념이
봄날 싹 돋아나듯 눈과 얼음을 뚫고 솟아나
꽃을 피우려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0년, 100년 후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미래의 터를
이 시대 공직자가 닦아 놓았다는 신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부패청렴의 국격(國格)을 쌓고, ‘찬란한 내일’의 꽃을 만개해야 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봄꽃처럼 반가운 희망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이 재 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0.0304 vol.13

기획°특집

기획 특집	04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함께 만드는 깨끗한 행복
글로벌 ACRC	08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아시아권 국가들의 청렴 문화를 선도하다
ACRC Inside1	12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만남의 현장
ACRC Inside2	15	권익위가 만드는 부패 없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18	‘함께’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 나의 수호천사! 되찾은 나의 행복!!!
다시 만난 사람	20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현장합의로 파주지역 300가구 도시가스 공급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공기업 종합청렴도 1위, 한국공항공사
기자의 취재노트	29	‘부모님 영혼 갇아먹는 노인사기단’ 〈시사IN〉 정희상 기자의 취재 후기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33	배우 윤문식
우리가 먼저	36	윤리경영만이 살 길이다
브라보! 대한민국	39	춘하추동 자연을 담은, 세시절식
생활법률 110	42	세든 집에 난 불, 누구의 책임일까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4	‘국민 기업가(起業家)’ 시대가 왔다 _ 〈1인창조기업〉
ACRC News	46	
편집 후기	50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함께 만드는 깨끗한 행복

지난 2월 26일 '2010년도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국민신문고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민원 업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게 주는 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시상식에서 82명의 개인과 11개 기관이 옴부즈만, 부패방지, 민원업무추진 분야로 나뉘어 훈장·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글·서승범 사진·조향진



연 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이영석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연구실을 찾아와 백화점 상품권 뭉치를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 교수는 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 심의위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신도시 건설공사 입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고 관련자 4명이 구속되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평가위원 로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부패방지 분야 최고 기여자로 선정되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국민권익 보호 분야 최고 권위의 상, 국민신문고대상

이번 수상 대상자 가운데 부패방지 분야가 38명, 4개 기관으로 그중 4명이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각각 받았다. 옴부즈만 분야는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105개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독립성, 전문성, 적정성, 효과성 등 12개의 평가 지표를 적용해 11명, 5개 기관을 선정했다. 민원 업무 분야에서는 33명(민원유공 15명, 행정심판 유공 18명), 2개 기관이 상을 받아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민훈장 목련장은, 앞서 언급한 이영석 교수가 받았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고발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고 투명한 관행의 단초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포장은 (주)다산이앤지 주재건 회장과 문화방송의 시사교양4부 채환규 부장, 한국도로공사 감사실 이창성 실장이 받았다. 주재건 회장은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청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공사현장의 업무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였고, 채환규 부장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이창성 감사실장은 창의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개발하고 반부패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안양시 송승규 민원 옴부즈만 팀장은 안양시가 민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 공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통일부 김기혁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처리 잔여일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켜 역시 근정포장을 받았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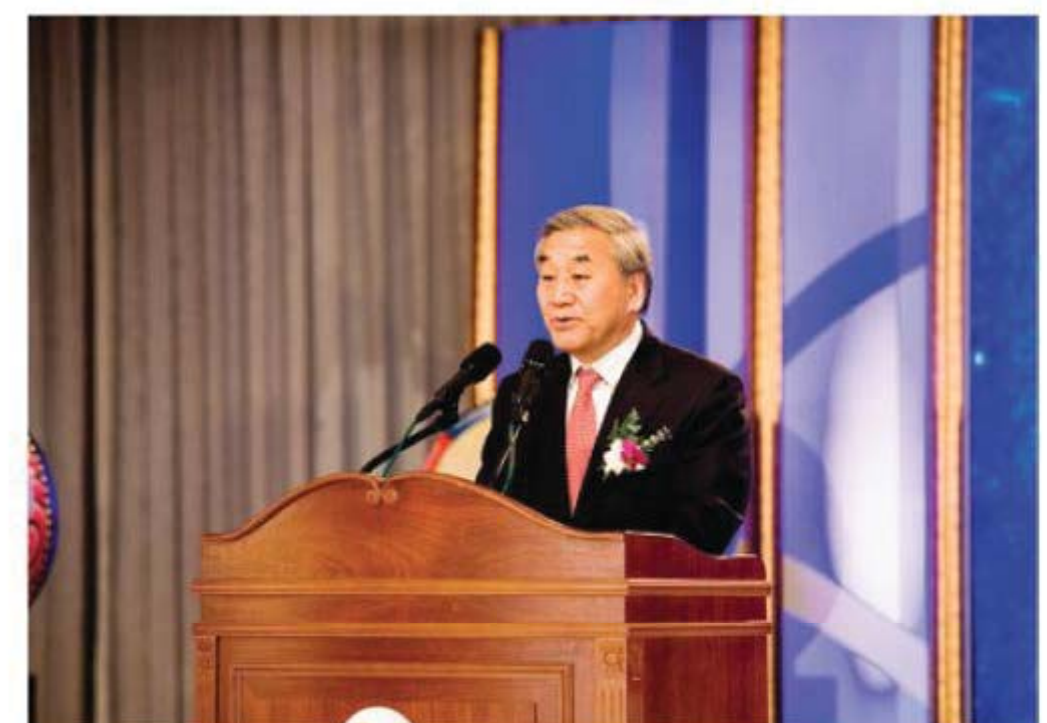
단체 가운데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안양시청과 관세청이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은 청렴도가 낮은 세관을 골라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패취약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양시청은 변호사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 옴부즈만'을 구성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시켜 나간 부분과 '기업 SOS'라는 맞춤형 기업 애로사항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관세청과 안양시청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와 병무청은 옴부즈만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 수몰지역 관련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한여울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조정 등 민원 해결에 있어 모범을 보였고, 병무청은 전국 징병검사장에 병역 판정 옴부즈만을 위촉해 판정을 둘러싼 시비의 여지를 없앴다.

한편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 단체의 숙식비 편취를 신고한 강아무개 씨와 K-9 자주포 사업 관련 납품비리를 고발한 김아무개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서울보훈병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신고한 유아무개 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모두 8명의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과 반부패·청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장 중심의 고충해결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낡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신문고대상의 근본 취지인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의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자가 많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신문고대상의 먼 바람이라 할 수 있겠다. 🌍



부패란 다른 누군가가 입는 피해, 국민 모두가 감시자 되어야

이용석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일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도 개선이 되고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도 있따랐지만 반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건설사의 부패 관행은 그 뿌리가 무척 깊은 것이어서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비슷한 청탁이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이용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건설사가 제공한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신고했고, 그 사회적 파장은 컸다. 이 교수는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다만 돈을 건네기 전에 전화로 연락이 와 신고했을 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받은 돈과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잠시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까닭인지 금품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관행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제 반대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루 피해를 입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런 관행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제도적으로 고발자는 보호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 듯, 성실성의것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보면 날림공사가 많습니다. 부정한 관행의 뒷모습이죠. 부패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눈앞의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너머를 보고 모두가 감시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비리를 고발하는 절차가 조금 간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 구체적인 법적 제도를 통해 뒷받침돼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주재건 (다산이앤지 회장, 국민포장 수상)



“2003년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서 옴부즈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5개 현장을 방문하면서 감리 업무와 계측관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후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설계관리부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계측관리 교육도 늘어났고 현장 방문 감리도 많아졌습지만, 결국 사고가 나기도 했지요. 양평동 수해는 907공구에서 났는데, 특히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재건 회장은 코레일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서울시 청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청렴 문화를 확산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그의 공적조서에는 ‘민간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열성으로’란 표현이 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기관 중 3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본부장 특별지시로 공무원 15명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총 30명이 일명 ‘끝장토론’을 했는데,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6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 본부를 완전히 뒤엎는 건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현실적으로 옴부즈만 활동은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나 코레일에서 제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이명박 시장님과 이철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고, 가장 어려운 마음, 역지사지(易地思之)

전희정 (병무청 행정주사보,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에겐 일상적이고 익숙한 일들이 이러한 상황을 간혹 접하게 되는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민원인이라도 불편했겠구나’ 심을 때가 또 있어요. 역지사지, 너무 흔하고 쉽지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전희정 씨가 하는 일은 ‘병무청 고객소리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다. 병무행정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이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조사하고, 불편불만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건수로 따지면 예비군 관련 상담이 많다. 그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생계곤란 병역감면 관련 민원처럼, 어려운 사정의 민원인에게 원치 않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다. 당사자의 부주의로 징병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재외공관에 연락을 취해서 해결할 정도로 그는 열심이다.

“저도 매너리즘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저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많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항상 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각오를 다진 지 벌써 13년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고객소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좀 더 잘 운영하고 싶어요. 고객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재오 위원장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 장관이 한-베트남 반부패협력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아시아권 국가들의 청렴 문화를 선도하다

정리 · 편집실



이재오 위원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오 위원장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청사에서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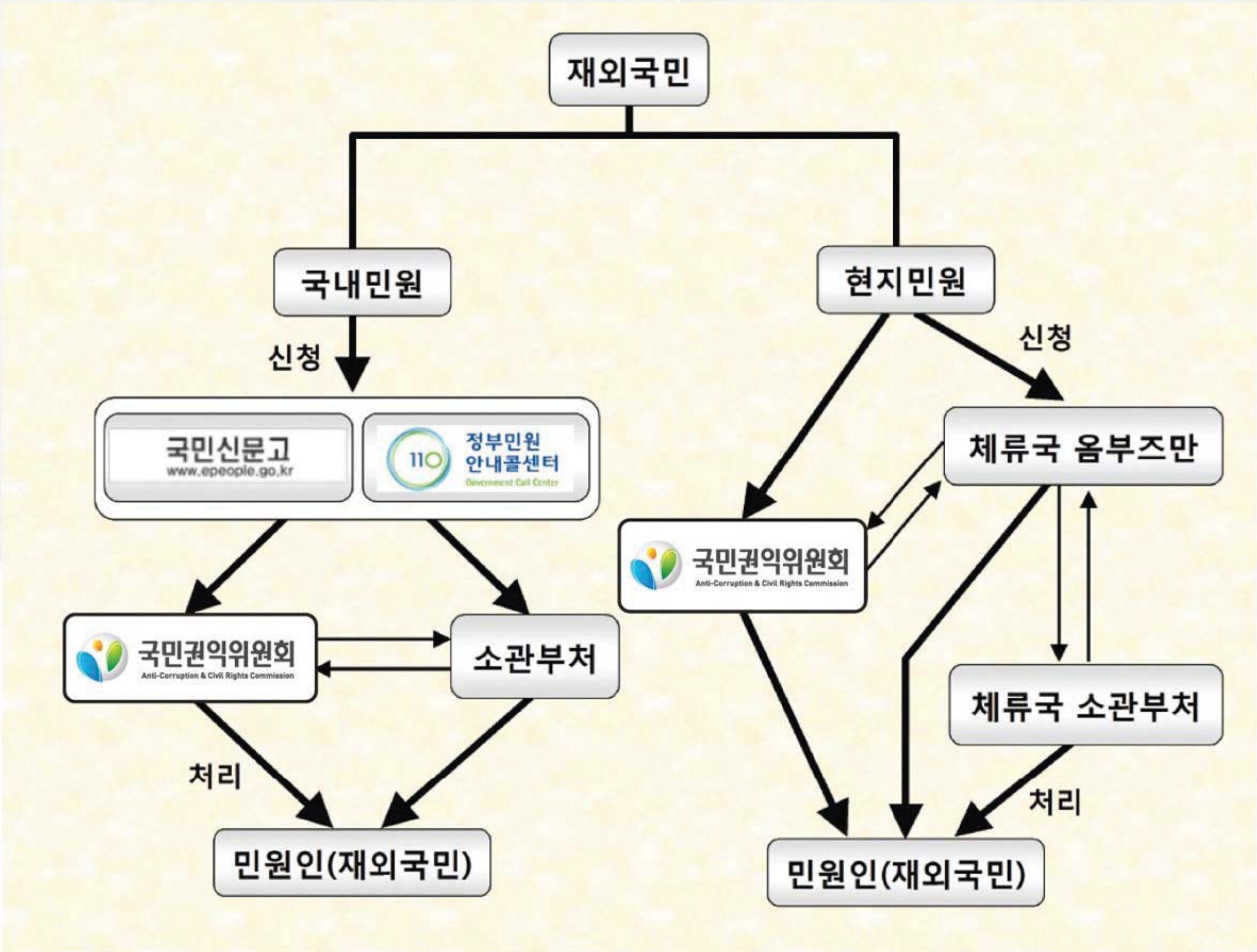
우 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행정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중간에서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6월과 7월에는 국내 거주 몽골인과 인도네시아인을 위해 몽골어·인도네시아어 전용 민원 창구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개설되고, 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과 연계한 권익위 반부패 청렴 활동 협력 사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6박 7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인도네시아와 재외국민 권익 향상과 고충 해결 위한 옴부즈만 협력을 시작으로

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재외국민 권익 향상과 반부패기술 지원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먼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Antonius Sujata)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재외국민(기업체 포함)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권익 향상을 위해 양측이 할 수 있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측은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 또한 접수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대국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대국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노동자,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언어로 민원 신청 및 회신이 가능토록 하였다.

양국 옴부즈만 간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익 및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주 재외교포와 기업인들의 고충민원 해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이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가지 언어뿐이었으나, 인도네시아어와 몽골어도 실무 작업을 거쳐 6, 7월쯤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기업체 1,300여 개를 포함해 약 3만 2천 명의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오는 6월과 7월에는 국내 거주 몽골인과 인도네시아인을 위해 몽골어·인도네시아어 전용 민원 창구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개설되고, 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과 연계한 권익위 반부패 청렴 활동 협력 사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고충처리 절차도〉

이 위원장은 또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EC,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를 방문해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비트 사마드 리안토(Bibit Samad Rianto) 위원장 직무 대리wa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반부패기술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또 ‘G20정상회의 관련 국제 반부패 공조 의제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한-인니 반부패 당국 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G20정상회의를 통해 반부패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 체결 후 추진하게 된 기술 지원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3년간 제2기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의 반부패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현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6년 ‘한-인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청렴도 측정’(2007년), ‘반부패 시책 평가’(2008년), ‘부패 영향 평가’(2009년) 등 한국이 추진해온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청렴도 측정을 벤치마킹해 2008년부터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등 반부패 프로그램 추가 전수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베트남, 몽골과도 반부패 정책 협력 위한 MOU를 체결하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노하우가 베트남에도 전파된다. 반부패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베트남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월 3일 베트남을 방문해 부티엔 치엔(Vu Tien Chien)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OSCAC) 사무처 장관과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간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2월 5일에는 몽골을 방문해 몽골 부패방지청과 반부패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권익위는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몽골 부패방지청과 반부패 관련 정보 및 문서, 부패 예방과 척결의 경험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 반부패 분야 심포지엄과 포럼, 워크숍 등도 함께 진행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직윤리, 보호보상 정책 등 권익위가 시행하는 각종 부패방지 제도들이 베트남과 몽골 등에 확산될 전망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반부패기술 지원 국가는 6개국(부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몽골)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쩡응 빈 쩡(Truong Vinh Trong) 베트남 반부패전담 부총리를 방문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고, 템베렐(Demberel) 몽골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재한 몽골인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약속받는 등 전 방위적인 재외국민 권익보호 외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에서 각각 교민간담회를 갖는 등 재외국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이재오 위원장이 베트남 부총리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베트남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오 위원장이 몽골 국회의장과 양국의 국민권익 보호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만남의 현장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재오 위원장을 비롯, 주요 간부들이 매일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부터 모든 간부 공무원이 권익위를 방문한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도록 하는 '간부공무원 상담현장 체험 계획'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글 · 전체련



간 부공무원 상담현장 체험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 100일 행사 일환으로 1월 7일 실시되었었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의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직접 민원 상담을 하며 ‘1일 상담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시야가 넓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라며 현장체험에 대해 보다 많은 간부가 참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17일 약 한 달간은 심의관급 이상 간부들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상담현장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정된 정확한 일정에 맞춰 간부공무원이 방문민원인을 직접 상담하고 조사관은 상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민원상담 후, 신청된 민원은 간부공무원 상담 아래 접수된 민원임을 별도 표기하여 신속히 접수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간부의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경우 상담안내담당관실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상담 직원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였다.

전 간부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상담센터 상담현장 체험 행사

1월 7일에는 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상담을 하였는데 도시 분야와 국세 분야에 해당하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먼저 도시 분야 상담민원은 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한 청원으로, 유모 씨는 이 위원장에게 “지자체가 혈값에 땅을 팔라는 부당한 요구를 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해 매입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관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 사실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일 해당 민원 사안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도시수자원민원과로 즉시 이관하였으며, 1월 13일 일자로 원만하게 합의 해결되었다.

국세 분야 상담민원은 민원인이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어,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민원 처리를 종결하였다.



신속한 민원처리, 합리적인 해결과정, 지속적인 사후 관리

이번 간부공무원 상담현장 체험 행사를 통해 권익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장에 있던 방문 민원인들은 간부 상담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보이며, 특히 고위 간부와 상담은 민원 해결 여부에 상관없이 속 시원히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민원 해결에 더욱 애정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김준배 보호보상과장은 “민원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민원인이 위원회를 방문한 후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채형규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처리가 곧 우리 업무다. 이러한 행사는 이벤트성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사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간부들이 나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관들을 독려했다. 이밖에 조사관들은 혼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할 때보다 간부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나가면서 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은 부분 의지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부공무원 상담센터 상담현장 체험’ 행사는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에 힘쓰는 조사관들의 고충 또한 경험할 수 있어, 간부공무원들이 민원처리 현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모든 민원처리 과정마다 민원인과 담당 조사관의 의견과 함께 간부의 의견을 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다. 또 국민의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밀도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권익위 간부 공무원들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

“민원인이 위원회를 방문한 후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고충처리가 곧 우리 업무다. 이러한 행사는 이벤트성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사안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권익위가 만드는 부패 없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주한 외국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외국인 투자는 국내환경에 민감하다. 그들은 한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 관련 규제와 정책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청렴도 그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글 · 정소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외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장 마리 위르피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윌리엄 오벌린 보잉사 사장, 아와야 쓰토무 한국 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 요세프 마일링거 지멘스 코리아 사장, 리차드 힐 SC제일은행장, 프랭크 리틀 3M코리아 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내진료센터 소장을 비롯해 외국기업 CEO와 외국인 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해온 다양한 노력과 향후 계획을 외국기업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반부패 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외국인들이 기업 활동이나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내부부터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민원 신청양식 개선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민원 신청양식 개선 의견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교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한 주한 외국기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법규 개정을 통한 쌍벌제 도입 등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하였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 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패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부패공무원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부패공무원 고발의 의무화를 담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외국인 CEO들의 다양한 고충과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국기업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18	'함께' 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 나의 수호천사! 되찾은 나의 행복!!!
다시 만난 사람	20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현장합의로 파주지역 300가구 도시가스 공급
행정심판 다시보기	2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현장에서 찾은 희망	26	공기업 종합청렴도 1위, 한국공항공사
기자의 취재노트	29	'부모님 영혼 갇아먹는 노인사기단' 〈시사IN〉 정희상 기자의 취재 후기



‘함께’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 나의 수호천사! 되찾은 나의 행복!!!

글 · 이안섭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원진우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구 표면제와 인테리어 내장제용 시트를 만들고 있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억 원을 내는 건실한 중소기업입니다. 튼실한 저희 회사가 위기를 맞고 또 회생을 하게 된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2007년 50억 원을 투자해 기존에 있던 시화공단에서 반월 공단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 때문에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폐쇄명령처분을 받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죠. 공장을 신축·이전하여 전 종업원들이 이전 개업식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으로 부풀어 있는데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다니.....

당시 반월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안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무사히 공장을 지었지만, 공장 완공 후 저희 회사의 환경관련 설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입주제한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공장 이전을 2007년 12월에 했고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정상으로 돌아온 게 2009년 6월이니깐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벌금 내고, 범죄자 되고, 변호사 쫓아다니고, 소송 비용도 5천만 원이나 들고. 관련 기관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제가 만났던 공무원들 전부는 ‘법이 이렇다’, ‘우리 권한 밖이다’, ‘법대로 해라!’ 식이더군요. 결국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입주 전에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었습니다. 기업 운영은 제가 하는 것이고, 제 사업이며, 그것에 대한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 모두 제 책임이니깐요.

그러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민원 전담창구에 민원을 제출하고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뭐 그리 차이가 있겠냐”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함께 처리하고 진행해가면서 여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기업인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권익위 기업민원 전담 창구에 민원 접수를 하자마자 조사관 한 분이 공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도 및 관련 부처와 회의를 가진 후 다시 공장을 방문하여 회의 결과를 알려주셨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후 권익위에서는 안산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관련 지침 개정 지연에 따라 기관 간 ‘先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속전속결의 모습을 통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에서도 현장 방문부터 관련 법 개정에는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One Stop Service’를 적극 실천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될 무렵에도 당사가 필요할 만한 사항을 전해 주시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 후,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주시는 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주셨습니다. 자금 지원도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해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경기도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 가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직접 저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제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지속적이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안섭 올림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를 움직이는 사람들

다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메마르고 삭막한 현실에 막혀 절망하게 된다. 특히 힘없는 서민들은 절체절명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어딘가 호소하고 싶어도 엄격한 법 적용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편지로 소개한 원진우드의 경우처럼 말이다. 이럴 때 약자의 편에 서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보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이곳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글 · 이용규 사진 · 조향진



국 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 가운데 농림, 해양수산, 환경,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부서답게 연신 전화벨이 울리고, 저마다 사연이 담긴 민원 서류들이 담당 조사관들의 책상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특히,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자필로 써내려간 편지글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경우 13명 조사관이 분야별로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민원이 양적으로도 증가했지만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사례들이 접수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 그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관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와 행정쟁송과 같은 구체적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 MOU를 체결,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등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기업 옴부즈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친비즈니스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농림환경민원과는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기업 옴부즈만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민원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민원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기업 입장이 반영된 대안과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다른 구체 절차가 진행 중인 민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진우드의 경우 법 적용의 문제를 떠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홍진 조사관의 말처럼 만약 기본 방침대로 원리원칙을 고수했다면 원진우드의 민원 해결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법과 규제를 떠나 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명한 상생의 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의 기업애로 전담 조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그간의 노력들이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산업농림환경민원과는 얼마 전 선박조선기자재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증축한 경우였는데, 농지법 상으로 보면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증축을 목적으로 부지를 구입한 해당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권장하는 정부 취지에서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런 증축 행위를 창업으로 해석하지 않았기에 양쪽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판단대로라면 창업으로 해석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던 공장 부지였으니 승계의 의미로 해석하여 당연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갈창무 과장은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거나 절박한



민원을 제기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운 경우, 이는 조사관 모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는다.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하려 노력하지만,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문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맡고 있는 조정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제갈창무 과장은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업무를 이렇게 정의 내린다.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업무는 그야말로 생활 그 자체입니다.” 🌍

현장합의로...

파주시역 300가구 도시가스 공급



경기도 파주시 소재
아동동 2개 마을 및 조리읍 등원2리
1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천여명은...

가스공급이
안돼 불편
해요~

주민들은 2001년부터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가스배관매설
공사가 어렵습
니다!!



불편함을 주민들은
8년간이나 요청
하였는데 드디어...



2009년 6월
가스배관
매설공사
착공!!

그러던 중
공사 중단!!

‘도로법’상 최근
포장된 도로는 3년 이내에
재굴착이 안되므로
통일로 변 85m 구간에서
배관공사를
불허합니다!!



서울도시가스

마무리공사를 위해
통일로변 가스관로
매설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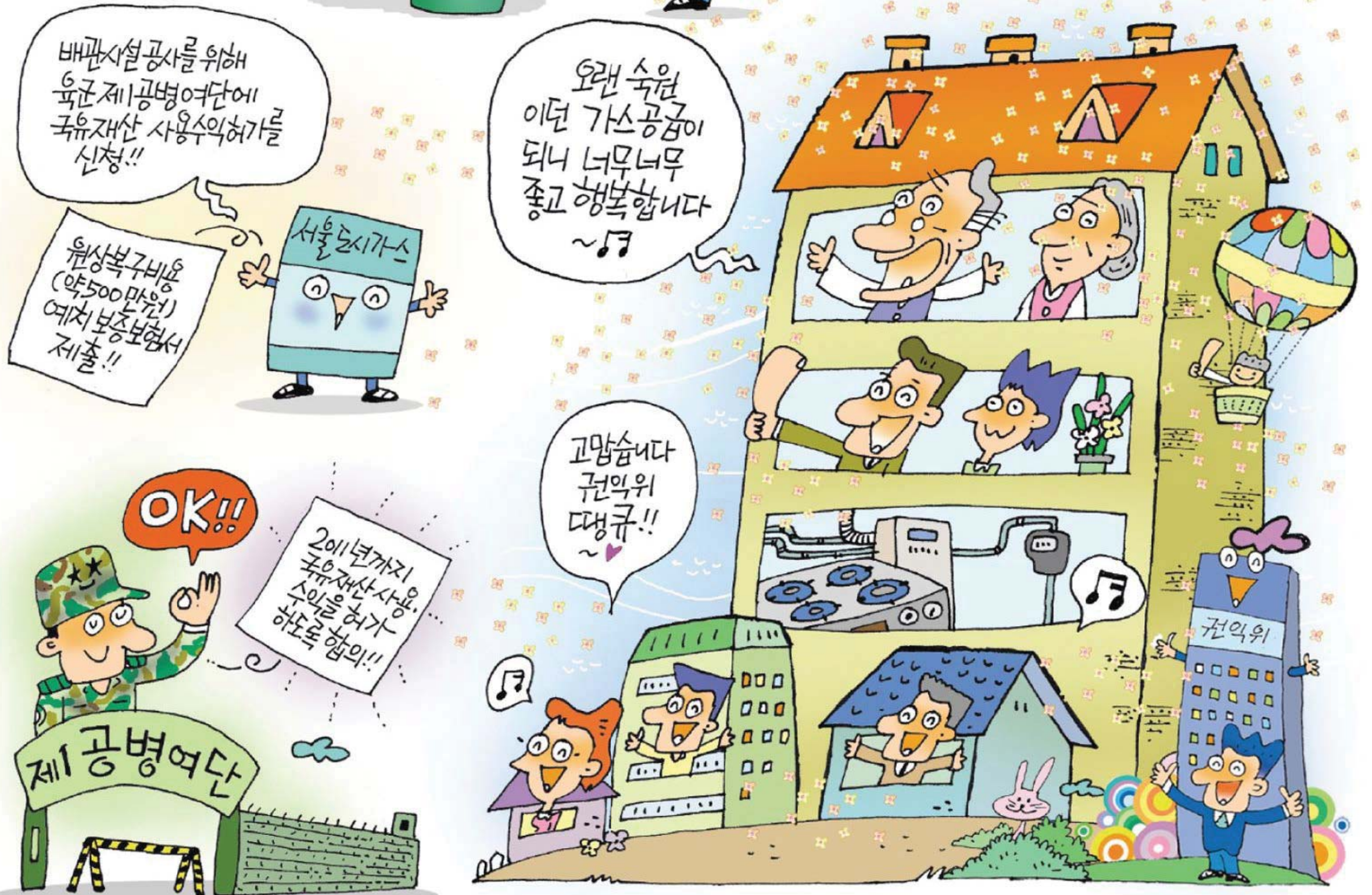
도로굴착
허가
신청서

의정부 국토
관리사무소

배관공사
빨리 좀 마무리
해주세요~

너무 출고
불편해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Q 작년 여름, 저희 사업장에서 고령자인 K씨를 채용했습니다. 채용 전 K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면접을 치렀는데, 알고 보니 K씨가 소개를 받기 전부터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상태였더군요. 그 사실을 안 상태에서 K씨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 받아 정식으로 고용했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소개를 받은 점 때문에 혹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궁금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지난해 포항의 한 기업에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포항의 A기업은 거래처 소개로 정년퇴직한 직원 3명을 소개 받았습니다. A기업은 이들 3명과 전화면접을 봤고, 워크넷(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이트)을 통해 B씨가 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 2차 면접을 치른 후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기업은 고용지원센터에 B씨를 고령자로 지원해 72만 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지원센터가 B씨를 순수하게 워크넷을 통해 알선 받은 것이 아닌 거래처를 통해 알선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B씨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회사는 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하며, 알선 없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A기업과 B씨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1년여 동안 워크넷 등을 통해 알선을 받았으나 고령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점, △A기업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등록을 한 점, △거래처 소개로 B씨의 인적사항을 A기업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더라도 알선이 없었더라면 채용을 보장할 수 없었던 점, △워크넷의 알선을 받기 전 A기업이 B 씨를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기업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B씨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향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또 부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신청 전에 사업주가 꼼꼼히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위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겠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보험 정보→기업 혜택→고용촉진 지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클릭해 참고하면 됩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정부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바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사람들 중 대상자별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3일 이전, 201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신규고용자의 경우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 원이 지원되고,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 원, 중증장애인 이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45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29세 이하 청년실업자와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 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종합청렴도 1위를 달성한 영광의 주역들,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일동

공기업 종합청렴도 1위, 한국공항공사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공항경영 글로벌 리더

오랜 시간 습관화된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어려운 법. 변화에 대한 인식이 진정성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나 1,700명의 구성원을 가진 큰 조직이 변화의 바람을 체감하고 스스로 참여하기까지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과 의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200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신규평가 대상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여 2관왕의 영예를 얻은 한국공항공사의 ‘고군분투기’가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 이용규 사진 · 조향진

지난 1980년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14개 지방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각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경영환경 및 사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공항운영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전 구성원이 공감하게 되었다. 여기에 CEO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이 한국공항공사가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단초가 되었다.

그간 한국공항공사는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성장가도를 달려왔다고 자부하였지만,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가 공기업 부문 65개 기관 중 58위를 기록하며 남모를 속병을 앓아온 것이 사실. 더구나 지난해에 비해 지표가 오히려 후퇴한 결과였으니 공사 전체가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었다.

교육을 통한 대대적인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2008년 말, 공항공사 감사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암울함 그 자체였다. 처참한 청렴도 결과를 접하면서 그 원인을 놓고 며칠 동안 토론을 벌인 결과,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조직원들의 인식이나 열정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보다 강도 높은 캠페인으로 이를 일깨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사는 본사를 포함 14개 공항, 항공기술훈련원, 항로시설본부 등 총 17개 사업조직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관장의 의지나 비전이 동시에 확산되기 어렵고,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회사 방침이 단시간에 공감대를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청렴도 확산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생각에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교육의 힘을 무엇보다 강조한 박종선 상임감사위원은 전국 17개 조직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효과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해나갔고, 특히 현장 교대근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지역본부와 같은 큰 조직에 대해서는 사흘 연속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청렴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상임감사위원이 1년 동안 서너 차례 직접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 조직에 가서 일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 직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인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효과가 생겨나게 되었다. 총 70회에 이르는 교육을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빛나는 성과로 이어졌음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최하위에서 일등기관으로의 도약

“저희 공사에서 일어나는 계약은 700~800만 원에 불과한



부패 척결을 위해 철저부심하는 박종선 상임감사위원 이하 직원들의 회의 장면



한국공항공사 전경

작은 계약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대형 비리가 일어나기 보단 그간 관례적으로 발생했던 소소한 비리들이 많았던 거죠. 소소한 비리들이 모여서 우리 공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무신경하게 이루어졌던 과거 관행에 대해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하 감사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거의 ‘바닥을 치는’ 저조한 청렴도 점수를 기록한 한국공항공사가 철저부심 노력하여 최상위권 도약을 이루어내기까지는 ‘모세혈관 조직’ 까지 속속들이 파고 들어간 의식 개선이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직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교육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자는데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인식이나 관심이 충분히 높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원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지사에까지 교육 효과가 확산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리하여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는 아날로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렴도 최하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의 등극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심은 곧 통한다는 진리를 증

지난 일 년간 펼쳐 온 적극적인
교육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하여 굳은 의지를 표하는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명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부패 척결을 위한 성시철 사장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울타리 삼아, 2009년 한해를 ‘부패 ZERO 원년’으로 선포하고 6월 16일 다산 정약용 선생 탄신일을 ‘KAC 청렴의 날’로 제정하였다. 2급 이상 간부들이 청렴 위반을 할 경우 자진 사직하겠다는 각오를 담은 ‘청렴사직서약’을 제출하였다.

또 반부패 청렴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약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공익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갔으며, 계약실명제 등 구체적인 청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전사적인 참여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갔다.

지난 일 년간 펼쳐온 적극적인 교육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특히 소규모 지사들이 더욱 앞장서서 2~3만 원 단위의 작은 선물도 자진 신고하게 하고, 식사 접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Clean KAC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

2010년은 한국공항공사가 창사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립(而立)’의 나이를 맞아 정부종합평가에서 처음 기록한 1위라는 자리는 더욱 책임감 있는 공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 종합청렴도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그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외부 청렴도는 69개 기관 가운데 5위, 내부 청렴도는 24개 기관 가운데 2위입니다. 외부, 내부 청렴도를 모두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3관왕을 달성하는 것이 올 한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강력한 청렴 교육 정책과 체계적인 제도 정비, 그리고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청렴을 한국공항공사의 브랜드로 만들자’는 강한 의지가 하루 속히 뿌리내려지길 기대해본다. 🌱



‘부모님 영혼 잡아먹는 노인사기단’ <시사IN> 정희상 기자의 취재 후기 최고령자 울리며 한탕 수익 올리는 홍보관 마케팅 사기단

<시사IN> 편집국이 위치한 종로 인근에는 지난해 가을부터 중·노년 여성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7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의 3층 150여 평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 들어선 ‘비밀 아지트’를 찾는 이들이다. 비밀 아지트라고 표현한 것은 3층 사무실 입구에 ‘50세 이상 여성만 출입 허용, 주민등록증 확인’이라 써놓고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글·정희상 <시사IN> 기획특집 팀장



처음에는 다단계 판매회사가 들어섰다가 싶었지만 매일 출입하는 100여명 여성들의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으로 보여 다단계 유통회사는 아닌 듯싶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100명이 넘는 사무실 사방으로 자석요, 건강식품, 이불, 가전제품 따위가 천장에 닿을 만큼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 가운데 널따란 공간에는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울동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기자가 찾아온 용건을 밝혔더니 “우리는 건전하게 영업하는 홍보관이다. 문제는 단타방에 있다”며, 사업자등록증과 건강식품 판매 교육 수수료증 따위를 꺼내 보여주었다.

기자가 이 무렵 OO동의 노년 홍보관에 주목한 이유는 한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보 내용은 독자의 70대 어머니가 홍보관 측 핏에 빠져 계속 카드깡으

로 그곳에 출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불과 얼마 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 애쓰던 분이였다고. 그런데 최근 동네에 들어선 한 홍보관을 방문한 뒤 매일 휴지, 칫솔, 샴푸 등을 받아와서 “구경만 가도 이런 걸 다 주더라”라며 홍보관을 한껏 칭찬하시더니 이들의 핏에 빠져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카드로 결제하고, 급기야 전세금까지 빼려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에 홍보관 업자를 신고했지만 한번 둘러만 보고 돌아간 뒤 감감무소식이라며, 경찰도 이 업체와 유착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하였다.

미끼를 던져 노인을 유혹하는 홍보관

OO동의 홍보관 사업자 윤아무개 씨는 이런 피해 실태 제보에 대해 “실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홍보관들도 더러 있다. 솔직히 노인들에게 이곳은 중독성이 있다. 다만 특정 질 나쁜 홍보관처럼 한탕 하고 튀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있기에 우리 매장은 돈 없는 노인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보관을 출입하는 할머니 몇 분을 만나 왜 매일 이곳을 출입하는지 물어보았다. 72세 된 한 할머니는 “자식들보다 더 잘 해준다. 이곳은 우리 노인들의 놀이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후반의 할머니는 “갈 데는 없고 자식들도 무관심한데, 여기만 찾아오면 일일이 비위를 맞춰주고 공짜로 재밌게 놀게 해주니 물건을 비싸게 판다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라고 말했다.

전국에 걸쳐 10,000여 개 정도 되는 ‘홍보관’은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처럼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일종의 유통 업종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이 같은 홍보관 유통 방식은, 매장을 얻은 뒤 약 3~6개월 정도 한정해 영업을 하다가 충분히 매출을 올리면 다른

노인 상대 악덕 상술과 사기단이 활개를 치는 것은 노인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이 부족한 현실도 작용한다. 이밖에도 노인복지법에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 관한 조항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영업 장소를 물색해 떠나는 ‘메뚜기형 마케팅’이다. 홍보관은 지역과 취급 물품에 따라 ‘체험방’, ‘떴다방’, ‘지하방’ 등으로 불리며,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55세 이상 중·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영업한다.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운용은 물론 소비의 주도권이 주로 여성에게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 중 59세 이하 여성만을 상대로 한 매장은 이른바 ‘59매장’, 60세 이상만 한정해 출입토록 허용하는 매장은 속칭 ‘때깥 매장’이라 부른다.

최악의 고수익 사기를 치는 데끼야 그리고 초단타방

특히 65세 이상 7, 8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정 홍보관 업체는 ‘데끼야’라는 은어로 불리는데, 사기 폐해가 가장 큰 단타 매장들은 이 데끼야에 몰려 있다. 데끼야에는 주로 각종 의료기를 비치해 노인

들을 유인한 뒤 강매하는 ‘체험방’ 종류가 많다. 고가인 의료기는 보통 대당 7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을 호가하며, 마진률도 무려 40%에 이른다.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데끼야가 지역 유력 조직 폭력단의 이권 사업장이 된 경우도 여럿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홍보관(체험관 포함)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5일짜리 초단타방이다. 이곳에서는 싸구려 저질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 건강식품인양 포장해 판매한다. 판매하는 수법도 천편일률적이다. 첫날 건강식품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50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주겠다’고 한다. 대신 ‘곱하기 50개월 할부’라는 말은 아주 작게 말한다. 또 다른 예도 있다. 맨 처음 단타방들은 건강식품을 3만원이라 부른 뒤 판다. 한 노인이 3만 원을 내면 즉석에서 그 돈을 돌려준다. 다음날은 10만 원짜리라며 판다. 그런 뒤 또 돈을 돌려준다. 그 다음날 더 좋은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가져왔다고 하며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하며, 100만 원이 넘는 TV, 냉장고 등 고가 경품까지 내걸고 다음날까지 현금 100만 원 또는 카드 결제를 하게끔 만든다. 수금 후 물건과 경품은 즉석에서 배달해준다고 하며 집에 가서 마중 나올 준비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다! 물건이 오지 않아 걱정된 노인이 다음날 홍보관에 가보면 사무실은 없고 야반도주를 한 뒤다. 초단타 5일짜리, 15일짜리 단타방들은 대부분 이렇게 노인을 상대로 한탕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법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피해 노인들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는 노인 상대 홍보관 사기 피해 호소가 줄을 잇는다. 이처럼 일부 사기성의 홍보관을 출입했던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선물을 받으러 갔다가 재미를 느껴 홍보관이 문 닫기 전까지 매일 출입을 하며 오락과 소일, 그리고 물건 구매를 반복하는 일상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생활이나 건강상 불안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업자들의 기만적 상술에 넘어가기 쉽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 사기 상술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로는 민법상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제도’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데 소극적이고, 청약 철회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가 클 경우 대부분 뒤늦게 자녀들이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지만 수사도 여의치 않다. 최근 서울 은평구 지역을 무대로 5억 원대 노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적발해 기소한 서대문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부모님들이 시간을 때우며 노는 놀이터라고 생각해 사기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도 잘 안한다. 이건 단순한 사기 문제가 아니라 크나큰 사회문제다”라고 했다.

또한 노인 상대 악덕 상술과 사기단이 활개를 치는 것은 노인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이 부족한 현실도 작용한다. 이밖에도 노인복지법에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 관한 조항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해 허위광고와 강매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피해 노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된 꼴이다. 노인들을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이 글에 나타난 홍보관은 일반적인 홍보관 업체 및 사업체가 아닌 사기성을 지닌 특정 홍보관만을 언급한 것이오니 독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더 투명한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복/누/림

희망 인터뷰	33	배우 윤문식
우리가 먼저	36	윤리경영만이 살 길이다
브라보! 대한민국	39	춘하추동 자연을 담은, 세시절식
생활법률 110	42	세든 집에 난 불, 누구의 책임일까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4	‘국민 기업가(起業家)’ 시대가 왔다 _ 〈1인창조기업〉





30년 마당놀이 배우 윤문식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저도 꿈꿔요!”

윤문식은 서민형 배우다. 고관대작이나 기품 있는 역할보다는 늘 당하고 사는, 그러면서도 할 소리는 하는, 서민의 캐릭터다. 스스로 ‘땃돌 아래 연기’만 전담한다는 그. 지금까지 그가 연기 인생을 바친 곳은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이 아닌 ‘마당’이었다. 그는 지난해 말 마당놀이 3,000회 공연을 마쳤다. 오는 11월에는 30주년 기념공연이 잡혀 있다. 마당놀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윤문식을 봄빛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여의도에서 만나 보았다.

글 · 서승범 사진 · 조향진

사진 제공 · 극단미추



‘**곧** 재미’란 말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익살스러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란 뜻이다. 우습되 마냥 웃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아름답되 깊이를 갖춰야 한다. 배우 윤문식에게는 골재미가 있다. 그가 대중예술에서 등장하는 방식은 늘 미천한 자리에서 구박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영웅처럼 힘을 내 저항하기 보단 뒤돌아서 궁시령 대는 형태다. 때로는 욕지거리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소한 권력에도 쉽게 움츠린다. 사극으로 치면 방자나 기껏해야 아전이요, 현대극으로 치면 밥업소 주인 정도다. 대중이 그를 아끼는 이유는 소수의 ‘있는 사람’ 보다는 다수의 ‘없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대사에 깊은 울림이 있는 건 그가 오랜 마당극 생활에서 갈고 닦은, 말하자면 ‘내공’ 덕이다. 그의 마당극은 올해로 30년째다.

마당놀이 30년이 가르쳐 준 것은……

“했수로 30년이고 횡수로 3,000회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관객이에요. 제가 마당에서 30년 세월을 놀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관객의 힘이에요. 밥벌이만 생각했다면 훨씬 편한 걸 골랐을 거고, 돈을 바랐다면 더 쉬운 길이 많았고, 인기나 유명세를 원했다면 다른 방법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관객들이 뽑어내는 에너지, 그건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한 판 놀이가 끝나고 무대 뒤에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무대중독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첫째도 관객, 둘째도 관객 때문입니다.”

아침 방송 녹화를 마치고 나온 윤문식 씨를 방송사 카페에서 만났다. 조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마당극 이야기를 꺼내면서 관객의 에너지가 생각난 듯 그의 말에 강한 힘이 실렸다. 그의 표현을 따르면 그 넓은 공간(마당극의 공간은 일반 무대보다 훨씬 넓다)에 관객이 입김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신명이 날 수 없다. 그에게 관객은 아내가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과 같다.

환갑을 넘긴 지는 진즉에 오래되었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윤문식 씨는 그 좋아하던 술도 줄였다.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 무대에 오래 서고 싶어서다. 그가 그토록 존경해마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관객이 무서워서다. 어려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마당 놀이에 왔던 꼬마들이 이제 자신의 아이들 손을 잡고 다시 마당을 찾는다.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한 그들과 제대로 놀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대충 연기해서는 어렵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꼬박꼬박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1시간씩 가까운 산을 빼놓지 않고 찾는 이유도 무대고 관객이다.

그가 맡아온 역할은 심봉사, 변강쇠, 방자, 놀부, 배비장 등 누구나 바라는 멋있고 폼 나는 주류 배역에서 한발 비켜 서 있다. 스스로 ‘땃돌 아래 연기 인생’이라 말하며 자신의 소박한 외모 탓을 하는 그에게 아쉬움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땃돌 아래 연기란, 쉽게



마당극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소명'을
이야기했다. 누구도
마당극을 알아주지 않던
시절, 당시 정보과
형사들과 대학생들이
서로 다른 흑시나를
품던 그 시절,
그는 독립운동을 하듯
마당놀이를 했다.

말해 '사또 대신 이방' 역할만 했단 뜻이다. 미련은 없다. 용상 위의 임금을 받치는 건 댕돌 아래 서민이기 때문이다.

“출세한 사람 역할은 해본 적 없지만, 그리 탐나는 배역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아세요? 돈이든 권력이든, 뭐 깨나 있다는 사람들은요, 마당극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판의 대상이고 풍자의 대상이지요. 인간성만 놓고 보면 당하고 사는 서민들이 훨씬 훌륭하지요. 그런데도 아쉽겠어요?”

시대를 읽는 마당 정신을 배워라! 얼쑤~

지난해 가진 3,000회 기념 공연작은 <이춘풍전>이었다. 천하의 한량 이춘풍의 버릇을 남장으로 신분을 속인 아내 김 씨가 깨끗하게 고쳐낸다는 내용이다.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소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가 나서서 남자를, 곤장까지 때려가며 가르치려 드는 건 당시로선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여성운동이니 페미니즘이니 말하지만, 이미 조선 후기에 우리 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민들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면 새로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 마당극 30년 배우 윤문식의 지론이다.

“높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말이야 바로 해야지, 나랏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마당놀이 30년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소. 서민을 무서워하면 세상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디다. 난 이걸 '마당놀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소득이 4만 불이라고 해서 선진국 되는 거 아니잖소.”

윤문식 씨의 말처럼, 권익위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회는 권익위란 존재가 필요 없는 사회일 것이다. 애써 권익위를 찾지 않아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서민들이 쉽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나아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사회 말이다.

그는 배우다. 이제 될 만한 후배에게 앞자리를 넘기고 뒤에서 받치기만 하는 역할로 물러날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연극무대에 설 계획 또한 갖고 있다. 그는 묘비에 '여기 광대 윤문식 누워 있네'라 적고 싶다고 했다. 지나는 이들이 '이 친구, 참 유쾌했는데 말이야' 하며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세월 지난 지금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조금은 성공한 삶이라고 자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반평생을 마당놀이판에서 놀고 웃고 떠들고 즐기며 한 시대를 온몸으로 전한 큰 배우 윤문식. 그의 내일이 여전히 기대되는 이유는 풍자와 해학으로 읽어낼 또 다른 우리네 서민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롯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

윤리경영만이 살 길이다

기업의 윤리는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뿌리에는 금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최근 이슈가 된 도요타자동차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투명성과 윤리성은 기업이 계속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히 올해 가을 ISO26000 제정 등으로 기업의 활동환경은 급속하게 바뀔 전망이다. 권익위는 달라진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글 · 서승범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요타 사태로 놀라고 있던 지난 2월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76개 참가국의 표결에서 79%의 찬성표를 얻어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기구 초안 ISO 26000을 통과시켰다. 이 국제표준안은 한 차례의 투표를 더 거친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공식 제정되는데, 그 시기는 올해 10월쯤으로 예상된다.

벽은, 눕히면 다리가 된다

ISO 26000은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침이다. 핵심 철학은 '사회적 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동선의 실현' 이고, 이를 위한 주요 영역은 지배구조 개선과 인권, 노동환경 개선, 환경 보호,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이익, 사회 개발 등 7개로 나뉜다. 이 표준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소비자보호가이드 등 지금까지 나온 국제 이행 지침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실행 주체가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ISO 26000은 우리가 흔히 'CSR' 이라 부르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와 시민단체, 학교나 소비자까지 아우른다.

구속력이 약한 권고규범의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메가트렌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기업과 정부는 이미 ISO 26000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 <포춘>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협력업체들에 환경과 노동, 인권, 소비자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반응은 미미한 수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펴낸 보고서 '신무역장벽 ISO 26000에 대한 기업인식'에 따르면 기업의 59%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응책을 완전히 갖춘 기업은 4.9%, 어느 정도 갖춘 기업도 36.1%였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등 여러 주체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ISO 26000은 더 높고 견고한 장벽이지만 그 가치가 미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벽은, 넓히면 다리가 되는 법이다.

ISO는 나라마다 다른 품질보증 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탄생한 국제표준화기구다.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격이 국제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980년대 초 국제기술위원회를 조직해 국제표준규격 초안을 마련한 것이 시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6000

한편 기업과 정부 등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 역시 이미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97년 다국적기업들에게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를 만들도록 촉구했다. 이후 환경경영체제(ISO 14001)와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위원회(ISO/TC207)를 거쳐 2005년 국제표준화기구는 기업 등 여러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 지침서 제정에 나섰다.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ISO 26000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진출국의 고용 사정을 고려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위험성도 인식해야 한다. 환경경영은 물론 고용 확대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힘써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물자납품업체 측에도 ISO 26000의 준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포스코는 이미 2003년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기업윤리실천사무국'을 만들었다. 고객과의 거래, 이해관계 상충, 윤리규범의 준수 등 7개의 행동준칙에 따라 15개 조에 이르는 실천지침을 정해



소비자들은 윤리적인 기업을 원한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넘어야 할
장벽으로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지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발간한 탄소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와 온실가스 감축활동 성과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4년마다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여 왔고, 올해부터는 매년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전은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4개의 카테고리를 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중 윤리경영철학은 A. Carroll 교수의 이론을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 포함된다고 본다.

1999년 윤리경영을 기업경영 이념으로 받아들인 신세계는 그

해 12월 기존 감사팀을 기업윤리실천사무국으로 개편했다. 이후 고객 존중, 준법, 협력회사 존중, 청결, 인재 중시, 사회봉사를 윤리경영의 6대 테마로 정해 29개 평가지표, 7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신세계 윤리경영 지수를 개발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매월 윤리경영 테마를 설정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권익위, 윤리경영에 다각적 지원 나서

권익위는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우수 사례, 전문가 칼럼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매월 웹진으로 제작하여 기업의 윤리경영 업무 담당자, 경영학과 교수와 학생,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웹진의 디자인과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독자들이 보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윤리경영 담당자의 윤리의식 함양과 조직 내 윤리 이슈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4월에는 이를 보완하여 교육받은 내용을 소속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교육 교재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꾸린 윤리경영 매니저클럽의 활동도 더욱 왕성해진다.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윤리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발간한 윤리경영 관련 가이드 내용도 종합하기로 했다. 2007년 「기업윤리경영모델」, 2008년 「윤리경영보고서 표준안」, 2008년 「기업투명성 자가진단모델」을 종합해 「윤리경영 종합가이드」를 낼 계획.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자문을 구하고, 해외 유사 프로그램을 분석해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윤리적인 기업을 원한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고자 한다. 이것이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넘어야 할 장벽으로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윤리적인 경영, 윤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자가 윤리적인 기업을 만들고, 바른 국민이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니 만큼 우리 모두가 나서 윤리적인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사회문화 풍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



음력 6월 보름 유두날에 먹는 9가지 맛 구절판과 추석의 하이라이트 송편

춘하추동 자연을 담은, 세시절식

우리 조상의 삶은 자연과 깊게 맞닿아 있었다.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경생활을 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세시풍속이 발달하였다. 특히 춘하추동 제철에 나는 오방색 재료로 시절음식을 지어 먹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누대로 이어져 온 ‘지혜로운 자연의 밥상’ 세시절식에 대해 알아보자.

글·김지영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최고의 맛을 발휘하는 국화전과 국화주

농 부철학자 피에르 라비는 ‘자연은 이미 그 자체로 식물학, 곤충학, 물리학 등을 이야기하는 여러 개의 장들로 구성된 하나의 열린 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자연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영양학이며 생태의학이라고. 우리 조상의 삶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봄이면 새순처럼 향긋한 나물을 캐 먹으며 대지의 기운을 만끽했고, 여름이면 삼복절식으로 더위에 지친 속을 달래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햇과일로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며, 동짓날엔 팔죽으로 몸을 덥히고 귀신을 쫓았다. 계절에 나는 재료로 만든 시식(時食), 절식(節食) 등 세시음식의 전통이 발달했던 것이다. 절식이란 다달이 있는 명절에 차려 먹는 음식이고, 시식은 계절에 따라 나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이는 조상숭배 사상 아래 천신(薦新)의 뜻을 새기는 것, 농경의례적인 것, 기복과 면액을 바라는 것, 계절의 바뀔에 순응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 불교적인 것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

설날엔 순결한 흰 떡국, 봄에는 새콤달콤 탕평채

먼저 설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의 첫날을 맞아 새로운 몸가짐으로 가내 만족을 기원하며 세찬과 세주를 마련하여 조상께 다례를 드리는 날이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과 순결함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했다.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

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다. 세주(歲酒)를 데우지 않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다.

“일 년 열두 달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집집마다 무탈을 기원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정월 대보름은 오곡밥과 부럼, 귀밝이술을 먹었다. 부럼은 대보름날 새벽에 날밤, 호도, 은행, 무, 잣, 땅콩 등을 먹었다. 견과류를 깨무는 ‘딱’ 소리에 잠귀가 물러간다고 했으며 치아를 단단히 하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대보름날 아침에는 웃어른께 데우지 않은 청주를 드시게 하여 귀가 밝아지길 바라며 또한 일 년 내내 좋은 소리 듣기를 기원했다.

봄맛이 입춘의 음식은 탕평채, 죽순 나물, 달래, 냉이, 산갓 김치 등이다. 특히 녹두묵을 각종 야채와 함께 채 썰어서 새콤달콤하게 한 탕평채를 먹어 나른한 기운을 없애고 입맛을 돋우었다. 삼짇날은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하여 진달래주, 진달래화전, 오미자국을 먹었다. 양력 4월 20일 곡우절을 전후해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잡는 조기가 살찌고 맛이 좋다 하여 조기국 먹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단오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오래된 명절 중의 하나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 하여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나누어 먹었다. 대표적인 단오 음

봄이면 새순처럼 향긋한
나물을 캐 먹으며 대지의
기운을 만끽했고,
여름이면 삼복절식으로
더위에 지친 속을 달랬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햇과일로
수확의 기쁨을 누렸으며,
동짓날엔 팔죽으로 몸을 덥히고
귀신을 쫓았다.

식은 수리취떡인데, 수레바퀴의 바퀴살을 넣어 둥글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단오에 즐겨 먹던 제호탕은 조상들이 즐겨마시던 청량음료로, 조선시대 내의원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임금님께 바쳤다. 더위를 풀어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른 것을 그치게 해주며 위를 튼튼히 하고 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 여름철 으뜸으로 여기던 한방차이다.

6월의 한창. 음력 6월 보름은 유두날이라 하여, 맑은 개울물에 나가 목욕하고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청유(淸遊)하였다. 이는 상서롭지 못한 것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함이었다. 즐겨 먹던 음식으로는 수단과 보리수단, 건단, 유두면, 상화병, 연병, 수교의, 구절판, 편수, 어채 등이 있었다. 특히 액운을 쫓기 위해 유두면을 즐겼는데, 햇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같이 둥글게 모양을 빚어 잘게 만든 후 먹거나 이를 또한 오색 물감으로 색을 들여 세 개씩 이어 색실로 끼워서 차고 다니거나 문설주에 걸어 수복강녕을 기원했다. 그래서 유두날에 국수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내려오고 있다.

가을엔 햇곡식과 소나무 정기로 건강 기원

초복, 중복, 말복 등 삼복더위에는 ‘이열치열’, 열이 있는 것을 먹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양하였다. 주로 삼계탕, 육개장, 보신탕 등을 먹었는데, 복날에는 개를 잡아먹는 것이 풍속인양 되었으나 속가의 일이었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쇠고기를 얼큰하게 끓인 육개장을 개장국 대신으로 먹었다. 그 외에도 계절과일 등을 넉넉히 먹어 더위에 지친 몸을 보하였다.

추석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로, 수확의 계절답게 음식이 풍성하였다. 우선 햇곡식으로 밥과 떡(송편), 술을 만들었고 토란국을 주축으로 햇과일, 삼색나물 등이 올라가는데, 5가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오방색의 영양만점 음식이다.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은 솔잎과 함께 찌 내므로 송병이라고도 한다. 송편과 송편



빛깔도 고은 자연의 향기, 삼색나물

사이에 솔잎을 깔고 찌면 솔잎의 향이 자욱하게 배어들어 은은한 솔향기와 함께 가을 산의 정기까지 받아들여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고 여겼다. 또 송편 속에 깨, 콩, 밤 등 견과류를 넣어 탄수화물과 함께 콩류의 단백질과 견과류 속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을 보충하였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은 삼진날에 왔던 제비가 강남에 가는 날로 가을꽃인 국화를 따 국화주, 국화전, 국화화채 등을 해먹었다. 또 10월 상달에는 햇곡으로 술을 빚고, 시루떡을 만들어 마구간에 갖다 놓아 말이 잘 크고 무병하기를 빌었다. 24절기의 마지막 매듭인 동지에는 팔죽을 쑀었다. 팔죽에는 찹쌀가루로 둥글게 빚은 새알심을 나이대로 넣어 떠 주었고, 이 팔죽은 귀신을 쫓는다 하여 장독대와 대문에 뿌리기도 했다. 특히 팔죽과 함께 시원한 동치미와 동태국을 곁들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은 시절음식을 먹음으로써 해를 더해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며, 자연과 일체가 되어 겸손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었다. 물과 바람과 빛 등 큰 자연이 길러낸 천연밥상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한 것이다. 최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범람으로 친환경음식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세시절식은 그 가치를 더욱 발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세대의 식문화도 세시절식에 희망이 있다 하겠다. 🌍

세든 집에 난 불, 누구의 책임일까

예상치 못한 화재가 세든 집에서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화재 원인과 평소 건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자.

글 · 최정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우 리나라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두 특별법에는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이다. 임차인(세입자)은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생활 근거지(주거 또는 사업장)를 마련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임대인이 건물을 세입자(임차인)에게 인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고, 계약 종료 시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든 건물이 화재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가 타버리면 세입자는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원래대로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결국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화재 원인이 제3자의 고의(방화), 과실(담배불로 인한 실화) 등으로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

세입자가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화재를 100%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화재 이후 세입자는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해석되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이 전기 합선인 경우

전기 배선은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의 일부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계약 경위 및 임대 기간, 건물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 사고 발생 부분에 대한 세입자의 개입 여부(예를 들어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세입자가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기 배선상의 문제로 화재가 나면 구체적으로 전기 배선 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판결 사례

- ① 화재 발생 9개월 전에 세입자가 전기공사 면허 등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포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다른 입주자들보다 많은 전기를 소비하면서 많은 전선을 기존 분전판에서 끌어내려 사용한 경우, 법원은 세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 1575호 판결)
- ② 화재 원인이 된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은 통나무 벽 안쪽으로부터 천정 안쪽으로 연결되어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상태여서 세입자가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0. 7. 4. 99다 64384호 판결)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 모두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화재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직접 전기배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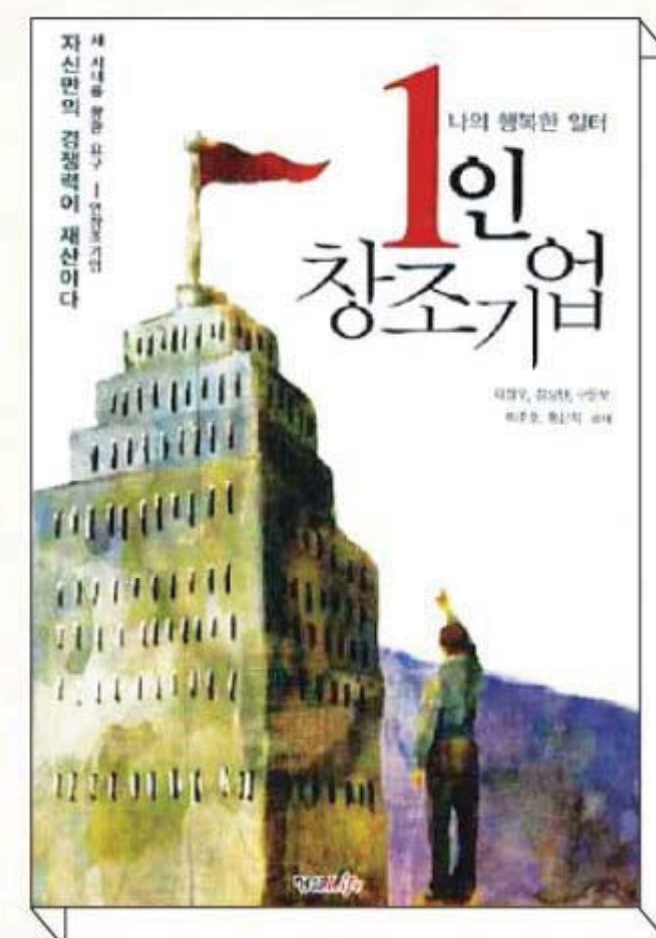
아울러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 보험을 통해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세든 건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세입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구상금 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건물주와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 수익자를 세입자로만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소유의 물건 손해, 영업 손해 등은 보상받을 수 있으나 건물주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까지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에 건물주도 포함시키는 '임차자배상책임' 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연락처 02-3780-0200, 홈페이지 www.kfpa.or.kr 참조) 🌐

‘국민 기업가(起業家)’ 시대가 왔다 〈1인창조기업〉

세계는 지금 산업화 시대를 넘어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승부하는 창조경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또 인터넷의 발달, 아웃소싱 증대, 개인의 전문주의 확산 등으로 1인창조기업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성공한 1인창조기업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1인창조기업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글 · 민정규 북코스모스 편집장



매일경제 녹색성장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1부_1인창조기업가 만나기

1인창조기업 시대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한 기업인을 보려면 큰 사업체를 찾아가거나 과학기술로 무장한 엘리트 벤처사업가를 만나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위에서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현재 1인창조기업의 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1인 사업 등록자(약 125만 개) 수의 4~5%인 5~6만 개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들의 매출 총계는 3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의 집약적 노력으로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면, 2014년쯤에는 60만 개의 1인창조기업들이 5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인창조기업과 성공 스토리

등잔 밑은 어둡지 않다 - 희망건강랜드 서진순 대표 : 서진순 대표의 시아버지는 일종의 약재 도매상을 운영하며, 마늘로 조청과 환을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던 중 1998년 마늘과 양파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오던 조청이나 환을 보다 현대화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마늘을 물처럼 마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3년간의 선행 조사와 다양한 방법의 시음, 평가, 가공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마침내 마늘 음료를 출시하게 된 것이었다. 현재 ‘희망건강랜드’는 1인창조기업

으로서 연구 개발만을 담당하고, 제조는 아웃소싱으로, 임상실험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먼저 실행하는 자의 것이다 - 신지모루 정찬호 대표 : 이제 음악은 파일이나 CD형태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하드웨어는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교체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이들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차량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신지모루’는 테이프를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 아이팟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생각했을 듯싶지만, 정찬호 대표는 이 기회를 먼저 포착하여 과감하게 제품을 출시했다. 그는 전자회사에서 3년간 상품기획을 하면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패턴과 수명 주기, 글로벌 마인드를 익혔고, 36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사업에 뛰어들었다.

공짜 신기술을 이용한다 - 만통점넷 박수형 작가 : 인터넷 만화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 드라마, 캐릭터, 피규어,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원 소스 멀티유주가 가능한 영역이다. 386세대의 추억을 감칠맛나게 표현한 만화로 네티즌의 폭발적 사랑을 받은 강도영 씨의 ‘강풀닷컴’과 캐릭터 상품으로도 성공한 ‘감자도리’, ‘스노우 캣’ 등도 기성만화 못지않은 인기를 모은 대표적인 예다.

2부_1인창조기업 들여다보기

1인창조기업 유형

① ‘생업신규창출 + 집필/강연’ 형 : 대표적인 예로 ‘예병일의 경제노트’를 들 수 있다. 경제, 자기 경영 분야의 책이나 보고서, 기사에서 좋은 글을 발췌해 회원들에게 매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이 34만 명에 이른다. 주로 원고와 강연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우편 원격교육인 북스 MB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천기술/제조/창작형 + 본업 전환/확장’ 형 : ‘고추장 할머니’, ‘제니의 초상’, ‘브이코아 출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고추장 할머니로 널리 알려진 이기남 할머니는 순창의 순혈을 지켜온 장인으로 장아찌 등 고추장의 매력을 확장시킨 다양한 음식 맛 개발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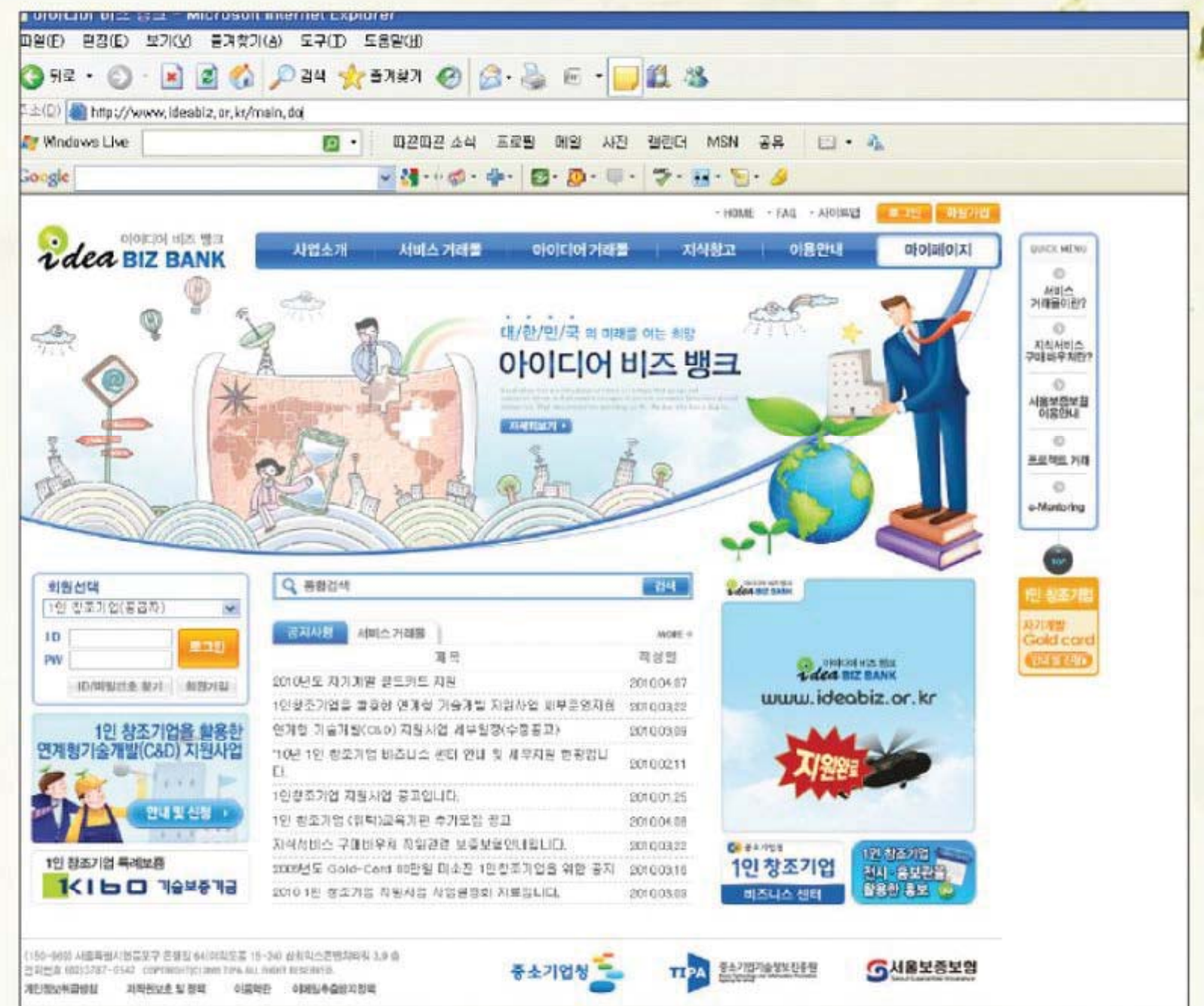
③ ‘컨설팅/서비스/지원’ 형 : ‘도토리 속 참나무(<http://docham.com/>)’ 사이트는 요리 블로거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레시피 속 요리 재료의 출처와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레시피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세트로 구성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양돈업자, 양계업자들은 재료의 신뢰를 책임지고, 요리 블로거들은 마케팅을 담당하며, 각각의 파트에서 상호 간 수익을 주고받고 있다.

④ ‘기획/발상/개발 + 검업/취미’ 형 : ‘제닉스의 사고몽치(<http://xenix.kr/>)’는 프로그래머 이일희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처음에 취미 삼아 해왔던 신제품 리뷰 게시물들이 모여 나중에 큰 수익을 얻게 된 경우다.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로부터 제품 리뷰 의뢰도 점차 늘고 있어 기대 이상의 수익과 함께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똑똑한 얼리어답터 매개체가 되었다.

3부_1인창조기업 되기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범 사업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기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비롯해 거래 단계에 이르는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화(40여 개 업체 선정) 건들에 대해 각각 5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제공한다. 그리고 창의성



1인창조기업을 위한 강력한 서포터즈, '아이디어 비즈뱅크(www.idealbiz.or.kr)'

과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포털 시스템인 '아이디어 비즈뱅크(www.idealbiz.or.kr)'도 1인창조기업을 위한 강력한 서포터즈다.

한편 최근에 아이디어 비즈뱅크 내에 신설된 'e서비스 거래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아웃소싱 활동에 1인창조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1인창조기업에게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발주할 경우, 중소기업은 계약 비용의 10%, 최고 300만 원까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인창조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감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체 인력을 제공하는 '대체인력 제도'도 구축되어 있다. 아울러 1인창조기업과 일감을 맡긴 발주자(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행보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40여 개 민간 비즈니스센터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효 공간도 이들 기업이 작업 및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콘텐츠 부가판권 등과 같은 아이디어 권리에 대한 권리화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이 대폭 감면될 예정이다. 🌈

ACRC News



제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개최

지난 2월 19일 '제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를 위해 선발된 새로운 블로그 기자단이다. 향후 이들은 권익위의 활동 상황이나 주요 업무 등을 제3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민원 해결 및 국가의 반부패 청렴 정책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익위 자체 홍보 교육 시에도 기자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권익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네이트 클럽·카페 개설도 검토 중에 있다. 기사 분야 16명, 웹툰 분야 4명으로 구성된 제3기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2010년 6월까지로 총 6개월이다.



‘청렴·쇄신 자기서약 실천 다짐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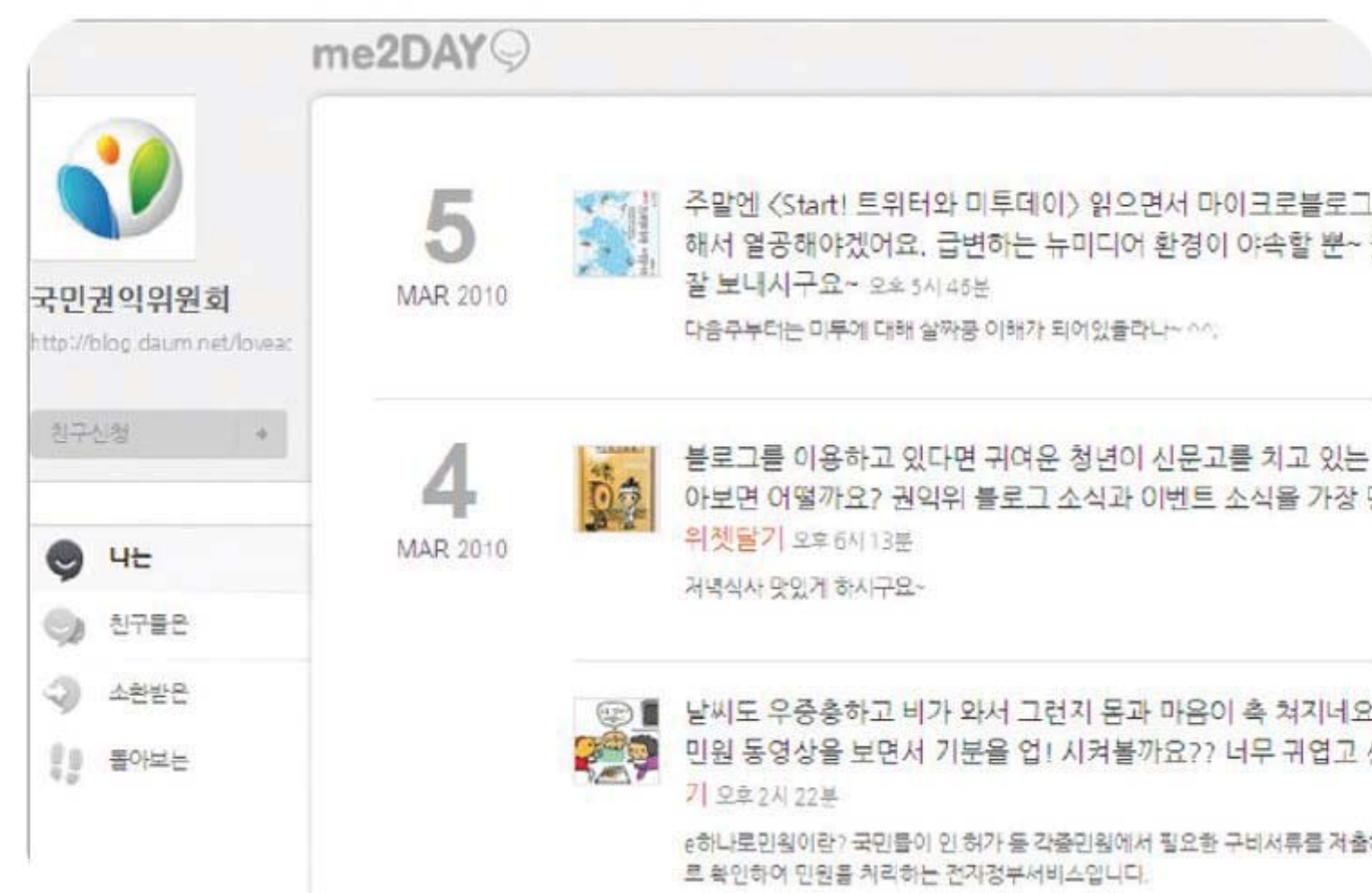
3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쇄신 자기서약 실천 다짐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을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청렴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500여 명 직원들이 앞장서 반부패·청렴 생활을 서약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권익위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한 생활신조가 담긴 서약서를 모아 특수 제작한 타임캡슐에 넣어, 연말에 다시 개봉해 한 해 동안의 청렴도를 스스로 자평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권익위는 청렴·쇄신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전 직원의 자기서약서가 봉인되어 있는 타임캡슐을 권익위 청사 1층 종합상담센터에 전시하기로 하였다.



김제 대청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3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대청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8일 전라북도 이동신문고 행사 때 70년 된 마을 다리의 폭을 넓혀달라는 대청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오 위원장이 즉시 중재해 김제시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대청마을 이장이 민원 해결을 계기로 권익위에 자매결연을 제기한 것을 이재오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행사에는 이재오 위원장을 비롯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최규성 국회의원, 이 건식 김제시장, 권익위 직원과 마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익 위는 앞으로도 수시로 대청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대청마을의 농산물 판로 확장에 보다 앞장설 계획이며,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가까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마이크로블로그

권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마이크로블로그'를 운영하여 국민들과 보다 긴밀한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블로그는 멀티미디어 블로그의 한 형태로 보통 140자 내외의 짧은 글 또는 사진, 오디오 클립 등의 작은 미디어(micromedia)를 올리고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는 공식 마이크로블로그인 트위터(<http://twitter.com/loveacrc>)와 미투데이(<http://me2day.net/loveacrc>), 요즘(<http://yozm.daum.net/loveacrc0229>)을 통해 블로그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위원회 관련 캠페인과 이벤트 시 마이크로블로그 친구들의 입소문을 활용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행정규칙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한 매개체로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만남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ACR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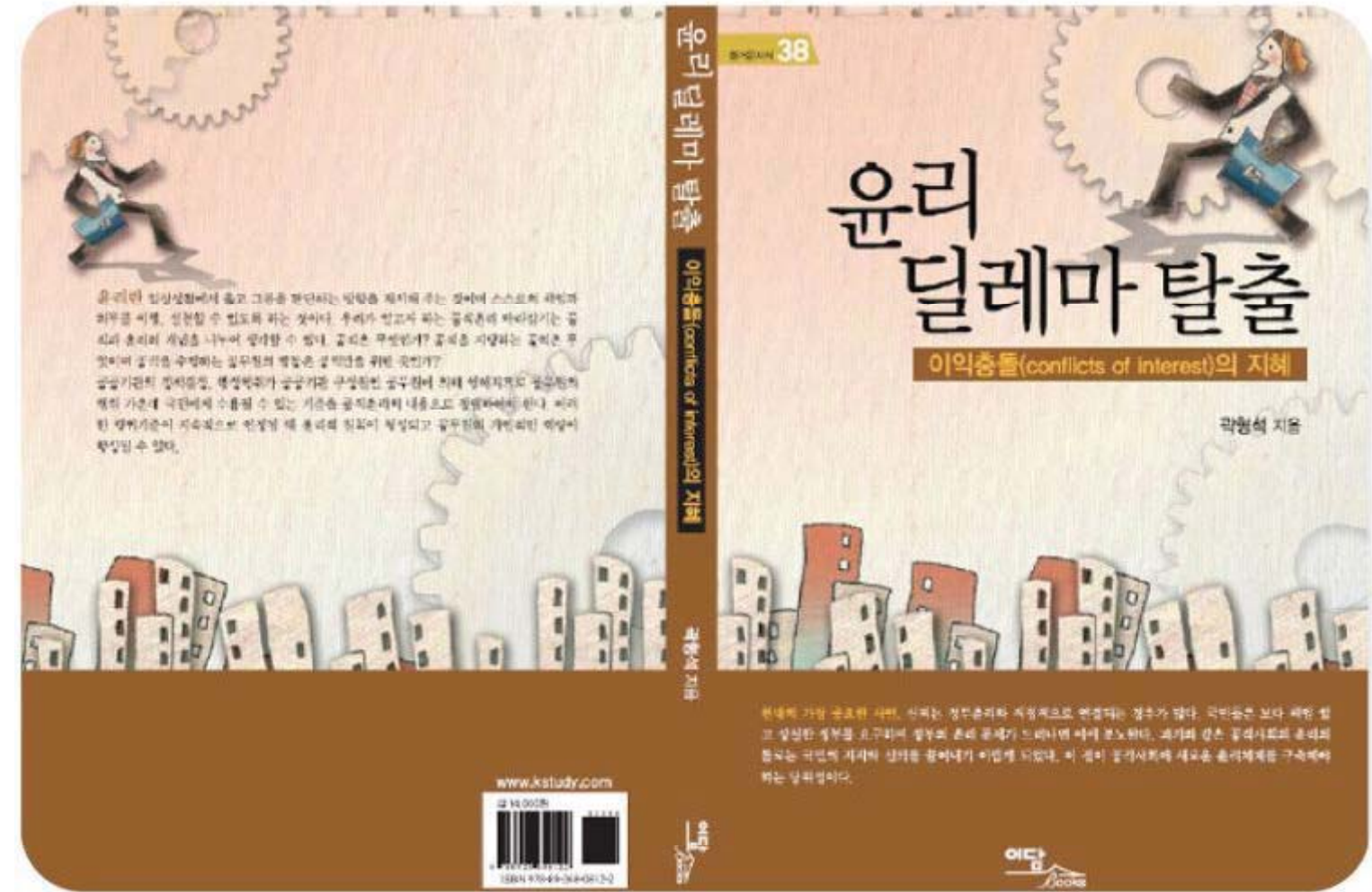


충남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및 민원 상담 실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당진, 예산, 홍성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 제도로, 지난 2월까지 전북 익산시, 김제시, 진안군과 충북 괴산, 보은, 단양군 등 6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35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이번 당진, 예산, 홍성 지역 상담은 산업,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농림·환경, 건축, 재정세무, 민사·법률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찾아가 지역 상공인과 농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였다. 또한 이동신문고 기간 중에는 홍성군과 예산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 교육이 실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 방문 대상 지역을 올해는 42개 지역(2009년, 28개)으로 대폭 확대하여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미 공직윤리 비교 책 발간

권익위 곽형석 청렴총괄과장이 미국 공직의 완고한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직 윤리규범의 선진적인 개혁을 꾀하고자 「윤리 딜레마 탈출」을 발간하였다. 저자는 워싱턴에 위치한 아메리칸 대학의 '국제범죄와 부패연구소'에서 초빙 연구원으로 재직 시, 정부윤리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책에 따르면, 미국의 청렴 핵심원리는 '이익 충돌(conflict of interests)'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이익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law)'은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마음속에서 충돌할 때 반드시 공익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책은 청렴에 대해 보다 엄격한 미국의 법 규정 및 관련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 사회 전반을 위한 공직윤리의 바람직한 新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 우수 청렴도측정 제도 태국으로 전파

올해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측정 제도가 태국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3월 29일부터 1주일간 권익위 회의실에서 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태국의 부패방지위원회와 법무부 소속 공무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측정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받고, 2009년 청렴도 우수기관인 관세청과 한국도로공사 방문해 청렴도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2009년 9월 체결된 『한-태국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서, 2010년 1월 방콕에서 개최된 ‘한-태국 반부패 협력 사업 착수회의’에서 2010년 청렴도측정 제도를 태국에 전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청렴도측정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부탄에도 전수한 바 있으며, 태국이 권익위에 MOU 체결을 요청한 배경도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외국에 성공적으로 전수된 것을 주목한 결과다. 향후에도 권익위는 청렴도측정 등 우리의 반부패 제도가 태국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충해결, 현장에 답이 있다」, 민원해결 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관들의 민원 해결 활약상을 담은 「고충해결, 현장에 답이 있다」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해온 권익위 조사관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현장 사례 18건을 담았다. 또한 수백 명의 주민과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원, 오랜 기간의 갈등으로 대화조차 어려웠던 민원, 법대로만 따지면 도무지 해결법이 보이지 않았던 서민 생활민원 등 현장에서 빛나는 권익위 조사관들의 기발한 해법과 감동적인 중재 노력이 수록되었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의 발간사를 통해 “국민들의 고충해결 최일선 기관인 권익위의 업무와 민원 조사관들의 열정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고충해결, 현장에 답이 있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원실에 배포되어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편집 후기

이번 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5월 22일)

Quiz+Quiz

	1		2	7
3, 4		5		
	6			
		8		

가로

-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000에 빠지다.
- 축구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그어 놓은 원.
- '잃어버린 세대'라는 뜻으로, 미국 문학에서 절망과 허무를 문학에 반영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 000제너레이션.

세로

- '골목', '골목길'의 제주도의 사투리. 거친 바람을 막기 위하여 큰 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돌(현무암)로 쌓은 골목을 말함.
- 유통 단계에서 상품의 매입·재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도·소매업자나 특약점, 브로커 따위가 있다. 또 다른 의미로 카드 도박에서, 카드를 나누는 사람.
- 멀티미디어 블로그의 한 형태로 140자 내외의 짧은 글 또는 사진, 오디오 클립 등의 작은 미디어를 올리고 배포하는 것. 0000블로그.
-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민원 업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게 주는 상으로 국민권익 보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민000대상.

지난호 퀴즈 정답

1 베			4 미	5 소
2 트	로	3 트		탐
남		릭		대
	7 클		6 과	실
8 그	린			

- ※ 낱말 퀴즈의 정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 <기획 특집> 기사를 읽다 보니 '청탁을 멀리하면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이 가깝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 하나면 어때?'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솔선수범이 절실한 때입니다. 작은 미꾸라지가 깨끗한 물을 흐리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양심을 살피워야 하겠습니다.

김수운 (대전광역시 중구)

- ◎ '청탁을 이겨내면 청렴이 보입니다'라는 광고를 요즘 자주 접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TV나 라디오 광고도 물론 중요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청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개인 및 기업 등 민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해 기업체에 배포하거나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상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은 어떤 해결책보다 더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찾은 권익'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는 권익위 조사관님의 열정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장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제1회 공직자 청렴에세이 공모전」 수상작을 읽어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뇌물 문화가 정도(正道)를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물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뇌물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부패 문화에 젖어들기 쉬우니까요.

이영호 (경기도 평택시)

- ◎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기자의 취재노트>를 읽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이 두세 달 밀리는 건 당연한 걸로 알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책을 잘 알려주고 있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어 더욱 든든합니다.

김춘녀 (대구광역시 동구)

청탁을 이겨내면, 청렴이 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청렴사회 - 청탁의 조종편〉 광고 이야기

“그럼 믿고 있겠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글쎄 받아두세요……,
계속 밀어주실 거죠?…….”



청탁의 줄과 연결되는 그 때부터,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청탁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청탁을 이겨내면 청렴이 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을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공익광고 공동 제작 및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권익위와 공동으로 공익광고 〈청렴사회-청탁의 조종〉을 제작, 3월 1일부터 1개월간 KBS, MBC, SBS 등 지상파TV 3사와 케이블TV, 라디오 등을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옷소매에 빨간 청탁의 끈이 연결된 사람이 꼭두각시처럼 회의장에서 대신 손도 들고, 결재 문서에 사인도 하는 장면을 통해 청탁의 조종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두운 화면에서 보이는 빨간 끈에 섬뜩함도 느끼셨을 거고, 가위로 끈을 자르는 장면에서는 안도감도 드셨을 겁니다. 약 30초의 짧은 광고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청탁을 이겨내면 청렴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큰 생각은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지 일러스트 · 함서정

새 봄, 거리를 수놓은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는 듯합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작은 씨앗들도 곧 예쁜 꽃으로 피어나겠지요. 그날을 꿈꾸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뚜벅뚜벅 발길을 향합니다.

